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5년 9월 21일(제215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지혜서 3,1-9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ㄴ-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성가]	8시	입당	287	봉헌	340	성체	179	파견	289
	11시	입당	286	봉헌	프린트 참고	성체	496	파견	283

연중 25 주일	9월 21일(주일)		9월 23일(화)	9월 24일(수)	9월 25일(목)	9월 26일(금)	9월 27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이명련 파트리샤	정미경 말가리다	채성일 토마스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성령 기도회
독 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미경 말가리다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윤춘주 세레나	채성일 토마스	성령 기도회
제의방	허홍숙 세실리아	이성연 베로니카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묵주기도		유윤미 리디아		채성일 토마스		이은자 마트로나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 미사 전 묵주기도

-수요일 11시 미사, 금요일 11시 미사, 주일 교중미사, 30분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9월 묵주기도 지향: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 9월 성경 통독

- 티모테오 1서, 1,1-3,16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일시: 10월 5일(일), 교중미사

- 한가위 맞이 송편 빚기는 10/4(토)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합동 위령미사 미사 봉헌은 10월 3일(금)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함께 제출>

-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조상님·형제자매·자녀·친인척·교형자매님을 위한 합동 연도가 있겠습니다.

- **점심 식사 후 윷놀이/투호/화투 놀이 등**을 진행합니다.

■본당설립 기념 야외미사

- 일시 : 10월 1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Robert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 당일 아침 8시 미사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향심기도 피정

- 일정: 2025년 10월22~10월 24일(2박3일)
- 장소: San Damiano Retreat(710 Highland Dr, Danville)
- 참가비: 1인실 380불, 2인실 350불
- 신청마감: 10월 5일까지
- 접수:양안나 자매님 (구이오 이사칠 사칠공일)

■ 장례미사 안내

- 오클랜드 구역 윤사비나 자매님의 아들 고 윤 Dama 요한 형제님의 장례미사가 9월 27일(토),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나/요아킴 9월 모임

- 일시: 9/27(토) 미사 후 친교실

■본당 주방 냉장고 교체를 위하여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사무실)

■모임 및 회의

- 오클랜드: 9월 21일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9월 21일 교육관 107호
- 리치몬드/버클리: 9월 21일 교육관 201호
- 알바니: 9월 21일 친교실 무대
- 알라메다: 9월 21일 오후 5:30 B.B. Bowl
- 구역장회의: 9월 28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9울 28일 오후 1:30 교육관 106호

■ 밥나눔 안내

- 메뉴: 소고기 미역국(박세실리아), 북어국(이아네스), 도토리 국수(김젬마), 돼지갈비 김치찜(이베로니카), 곤드레 비빔밥((알바니구역), 불고기(송아네스), 빈대떡(권마가렛), 아이스크림(학부모회)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2026년도 달력 광고주 모집

- 본당 달력에 광고를 실으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장민우, 김옥자마리아, 김혜숙아네스 유낙양베로니카,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수인,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차우타우카 행사를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마태오(9/21)
- 테클라(9/23)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 교우·가족들에게 남긴 말

순교한 이들의 '순교'는 따라죽을 순(殉)과 가르칠 교(敎)자를 쓴다. 죽음으로 자신의 하느님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쳐 사람들에게 '나의 하느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 놓인 순교자 성월 9월,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놓기 전 남긴 말과 행적의 향기를 맡으며, 그들의 걸음을 따라 우리도 '나의 하느님'을 만나보자.

부모가 한세상을 살며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처럼, 신앙 선조라고 부르는 순교자들 역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남겼다. 그들이 남긴 말은 때로는 책과 서한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면면히 우리에게 이어져왔다.

사제로서 목숨을 다한 순교자는 교우들의 마음에 가르침을 아로새겼고, 순교를 앞둔 평신도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에게 자신의 믿음을 남겼다. 자신을 재판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을 보인 순교자와 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을 증거한 사람들. 그들이 남기고 떠난 보배로운 말과 행적은 지금까지 '순교의 향기'로 남아 우리 신앙 앞에 우뚝 선다.

■ 교우들에게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어 쓸데없고, 비록 주은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이 없으면 이름을 무엇에 쓰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배은 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하면 아니 남만 못하리."

김대건 신부(1821~1846)의 '마지막 회유문'은 1846년 8월 말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쓴 것으로 그가 남긴 서한 가운데 스물한 번째 편지다.

곧 목숨을 바칠 사제는 남은 교우들과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할 말이 많다. 그는 아이를 조심시키는 부모와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으면서도 우리와 이별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앞으로 세속 마귀를 치고, 힘을 다하고,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극진히 조심하라고 이르기를 잊지 않는다.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설워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 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어머니와 가족에게

자신의 하느님을 증거하며 떳떳이 나아가는 순교의 길에도 가장 눈에 밟히는 인물은 어머니일 것이다.

이경도 가롤로(1780~1801,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는 자신의 사형 판결문에 서명을 마친 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자식의 말은 비장하다.

"다만 이 세상에서 어머니께 자식 노릇을 못하고 조금치도 뜻을 받들어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애달프고, 뉘우쳐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영영 떠나게 되니, 어머니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날이 없사옵니다."

여동생인 이순이 루갈다(1782~1801, 전주 숲정이에서 순교) 또한 어머니에게 순교를 앞두고 편지를 쓴다. **서한에는 섬세한 이별의 정한과 함께 순교에 대한 당당함이 나타나 있다. 그는 순교는 '부족하고 못난 자식을 참되고 보배로운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순교의 열매를 맺기도 전에 붓을 드는 것은 경솔한 짓이나 어머니가 걱정돼 위로를 삼으시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교의 끝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애달프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심도 주님 뜻이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도 주님 뜻이니, 죽고 삶에 얽매이는 것은 도리어 웃음을 살 일이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돌아보아도 마음 둘 데가 없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며,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늘나라 뿐입니다."(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중)

-카톨릭 신문 기획 특집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8명	155명	193명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희(10), 정일환(7-9), 강수영(9), 이명란(9), 전진영(7-9), 이정연(10), 부건화(7-9), 김원일(7-12), 송성숙(1-12), 촤삼남(9), 최윤기(9)					최윤기	김원일	이명란 최윤기		이명란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9/21(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9/21(일)	생	박동신 세레나	조모나셀라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박상일 시몬	조모나셀라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김상식 가롤로	염파트리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오화석 항검아우구스티노수사님	이베로니카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9/23(화)	연	최정자 젬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마르코	가족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송아네스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연	김순기 루갈다	최다니엘/루시아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김순기 루갈다	사목회
	연	김정희 율리엣다	가족		연	김순기 루갈다	양미카엘
	연	한문석 임마누엘	가족		생	천성배/황경옥	천종욱 다니엘
	연	한문석 임마누엘	김문환 베드로				
	연	양해숙 세레나	성모회	9/24(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쓰		연	김순기 루갈다	최다니엘/루시아
	연	김순기 루갈다	최마리아		연	김순기 루갈다	사목회
	연	김순기 루갈다	성모회		연	김순기 루갈다	양미카엘
	연	김순기 루갈다	사목회		연	윤Dana 요한	김순희 글라라
	연	김순기 루갈다	김엘리사벳		연	윤Dana 요한	염파트리샤
	연	김순기 루갈다	정청자 아가다		생	천성배	채쥴리아
	연	김순기 루갈다	부필로메나		생	로잰 다미고	채쥴리아
	연	부홍신 마티아	부필로메나		생	채용분 헬레나	채토마스
	연	이동춘 바오로	부필로메나				
	연	이동춘 바오로	김엘리사벳	9/15(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님	김엘리사벳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연	하동선 마태오 신부님	김엘리사벳		연	힌동설 안젤로	가족
	연	김만옥 요안나	전례성가대		연	김순기 루갈다	최다니엘/루시아
	연	김만옥 요안나	윤루카/루시아		연	김순기 루갈다	사목회
	연	윤Dana 요한	오클랜드 구역		연	김순기 루갈다	양미카엘
	연	오인구	조진행 바실리오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익명
					생	배데레사	양미카엘
9/21(일)	생	데이빗 골든	순배 수산나				
	생	강윤희 보나	순배 수산나	9/16(금)	연	김순기 루갈다	최다니엘/루시아
	생	장민우	찬미팀		연	김순기 루갈다	사목회
	생	천성배/황경옥	천종욱 다니엘		연	윤 Dana 요한	채쥴리아
	생	권영섭 요셉	김엘리사벳		연	양해숙 세레나	양 미카엘
	생	김영선 안젤라 가정	김엘리사벳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익명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정청자 아가다				
	생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고영남 안드레아				
	생	팽현팔 하비에르	박덕희 마리아				
	생	이줄리 율리엣다	박덕희 마리아	9/27(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조일혼 요셉	조용숙 카타리나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조성윤 이사악	조용숙 카타리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정일환 프란치스코	양미카엘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정영희 글라라	양미카엘		연	김순기 루갈다	최다니엘/루시아
	생	고야곱/크리스티나	양미카엘		연	김순기 루갈다	사목회
	생	양프란치스코	양미카엘		연	김순기 루갈다	김상실 가롤로
	생	양모니카/카타리나	양미카엘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생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